『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16
pp.291-309 ISSN : 1229-9618

『三言二拍』의 '증여' 서사*

유미경**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치생'론과 '증여' 의식
   1) 許衡과 陳確의 '치생'론
   2) 馮夢龍과 凌濛初의 '증여' 의식
3. 『三言二拍』의 '증여' 서사
   1) 배려와 구원
   2) 적선과 환원
4. 나가면서

【초록】

이 논문은 첫째, 明末 전후의 진보적인 儒者는 '治生'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치생이 '財富의 분배(증여)'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실천할 바탕이라고 인식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명말의 단편소설집 『三言二拍』의 작가 — 馮夢龍과 凌濛初는 그들의 저술 목적이 教化에 있고 通俗적 수단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식 기저에는 '치생' 욕구와 '증여' 의식이 함께 교차함을 밝혔다. 둘째, 그러한 치생과 증여의 의식이 『삼언이박』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서 배려, 구원, 적선, 환원 등의 다양한 '증여' 서사가 펼쳐짐을 밝힌다. 아울러 여러 '증여' 서사를 지배하는 의식의 기저를 규명하여 재부의 축적과 재분배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담론되는지를 밝혔다.

【키워드】 삼언, 이박, 명말, 치생, 증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919)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chinamky@daum.net)

1.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류사에서 상당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바로 자본주의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옴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주권과 국경을 허물고 세계화가 진행 중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적으로 빈자와 빈국을 양산했다. 국가와 국가 사이,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데 결국은 '분배'의 문제로 귀결된다. 분배는 '정치/정부'가 나서면 '복지'가 되고, '자본/기업'이 이끌면 '증여/기부'가 된다. 이 두 가지 대안으로 위기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데, 만약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약탈과 전쟁이라는 극단적 분배가 발생함은 세계사가 경험한 바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는 '재분배'를 사회적 인식으로 공유하고, 복지와 증여를 매우 활발하게 담론화하고 있다.

필자의 시각에는 明代末期의 상황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많이 닮아 보인다. 明末은 이른바 대변혁의 시대로 봉건사회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생산관계가 자생하여 이후 근대문화의 태를 품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된다. 굳이 '자본주의맹아론'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이 시기에 상업과 화폐경제가 미증유의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商人은 농민과 士人에 비해 더 많은 재부를 소유하여 신흥세력으로 부상하였고 향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방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과거급제의 통로가 더욱 좁아진 士人층에서는 治生 즉 생업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심지어 독서를 버리고 장사에 나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四民의 위계가 흔들렸다. 그리고 '明末淸初'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이때는 중앙의 정치권력이 흔들리고 왕조의 교체를 기다리는 정치적 혼란기였다. 그 와중에 程朱理學의 속박을 뚫고 나와 개성과 人欲을 긍정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니 개인의 이익추구와 재부축적의 본능 또한 너그러이 수용되었다. 반면에 부정적 여파로 사회는 방종하고 문란한 풍기가 만연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각종 범죄가 창궐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요컨대 정치의 부재, 경제의 번영, 사상의 방만, 사회의 혼란 등으로 압축되는 명말 시기의 세태만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馮夢龍과 凌濛初라는 소설가들은 그들이 윤색하고 창작한 小說『三言二拍』에 그러한 세태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1]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혼돈을 敎化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들의 작품들을 세상에 내보냈다고 했다. 즉, 그들 소설집의 많은 작품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사익 추구라는 '治生'[2] 행위들을 문학화하면서 동시에 배려, 구원, 적선, 환원

1) 명말의 소설가 풍몽룡과 능몽초는 중국 소설사에서 주목받는 존재이다. 풍몽룡은『三言』즉『古今小說』(『喩世名言』),『警世通言』,『醒世恒言』3권을 내었는데, 마지막 권은 天啓七年(1627)에 간행되었다. 능몽초는『二拍』즉『初刻拍案驚奇』,『二刻拍案驚奇』를 창작하여 각각 天啓七年(1627)과 崇禎五年(1632)에 간행했다.

2) 치생의 의미는 넓게는 생계를 위한 경제 행위에 종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좁게는 상업에 종사하여 이익을 증식함이다. 전통적으로 공자의 見利思義 사상의 전승과 더불어 士人이 백성들과

등의 다양한 '증여' 행위를 형상화하여 '財富의 집적과 재분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들 작품에서 형상화된 '치생'과 '증여'의 서사를 궁구하여, 재부의 집적와 재분배에 관한 문학적 담론을 해석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四民 중에서 재부와 가장 밀접한 계층이 상인이고 『삼언이박』을 비롯한 명말 소설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군 또한 '도시민/상인'이어서 그런지 『삼언이박』의 상인계층, 상인의식, 상인문화를 논하는 연구결과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3] 대체로 상인형상을 통해서 명대의 정치, 경제, 사회의 특징이나 특유의 사상과 문화를 탐구했고, 또는 徽商연구 같은 세부연구도 있다. 21세기에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文史哲 전반에 걸쳐 자국의 상업경제 전통을 탐색하는데 연구역량을 집결했다. 그 일환으로 문학연구에서 商人文學 혹은 商賈文學이란 개념을 제기하여 이를 장르화하고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여 적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았으나 또 다른 '중국식 오리엔탈리즘'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고 자국의 정치적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4]

우리나라에서도 『三言二拍』의 상인 및 상업현상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상인 형상을 위주로 개별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개별 텍스트를 제시하여 상고문학의 가능성과 특질을 밝히기도 하고,[5] 나아가 상인 형상이 『삼언』의 소극적이고 文弱陰柔함에서 『이박』의 능동적이고 陽剛의 특질로 轉化되는 현상을 규명하기도 했다.[6] 대체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대에 사상적으로는 陽明心學, 문학에서는 公安派의 영향으로 인해 개성과 인욕을 긍정하는 분위기였음을 수긍하고, 중요한 세력으로 새롭게 부상한 상인들의 성실근면하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긍정하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기존의 성과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는데 첫째, 작품을 편집하거나 창작한 이들이 士人 출신의 문인이다 보니 계층과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인들을 教化의 대상으로 상대화했다는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인물현상에 대

私利를 경쟁하여 치생하는 것을 폄훼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상업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을 유도하기도 했다.

3) 문학(소설)에서 '상인'연구 현황은 송진영의 「明淸商賈小說試論－金瓶梅를 중심으로」(『中國語文學誌』, 第36輯, 2011, pp.38-40), 유미경의 「'三言'의 화폐 형식 연구」(『동북아문화연구』, 제39집, 2014, pp.251-252) 참고.

4) 막스 베버가 서양 자본주의의 성장 동인을 사상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구한 논지를 모방하여, 일본과 아시아 四龍의 비약적 경제성장의 동인을 유교에서 찾는 이른바 유교식 자본주의에 대한 담론이 90년대에 논란이 되었다. IMF로 인해 그 논란의 열기는 완전히 식어버린 듯 했으나 최근 중국(대륙)에서 자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에 문명사적 당위를 부여하고, 대체 가능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박병석의 『중국상인문화』(교문사, 2001) 제8장 「하해, 유상 그리고 유교자본주의」에서 이를 중국식 오리엔탈리즘 즉 중국 중심의 사고, 중화주의임을 설파하고 치밀하게 비판하고 있다.

5) 송진영, 「明淸商賈小說試論—『金瓶梅』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第36輯, 2011; 송진영, 「'三言'의 상고소설연구—「蔣興哥重會珍珠衫」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第44輯, 2013; 송진영, 「'二拍'의 商賈小說 연구—「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龜龍殼」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第46輯, 2015.

6) 함은선, 「'三言''二拍'中商人刑象的社會意義」, 『國際中國學硏究』, 第6輯, 2003; 함은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화본소설중의 상인형상」, 『中國小說論叢』, 第25輯, 2007.

한 연구가 윤리적 시각에 의한 피상적 해석에 머물러 있고 '긍정적 형상', '선행관' 등의 소제목에서 보듯이 다분히 포괄적인 범주에서 다루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첫째의 대안으로 治生을 논한 明代의 문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문장들에서 상인이 (혹은 상업으로써) 자신의 세계관을 주체적으로 정립하고, '치생'이 중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스스로를 '증여'의 주체로 세울 수 있다는 인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생계 문제와 사익 추구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이며, 그러한 사익 추구는 '증여' 행위로 확장되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의 대안으로 작품분석에 있어 '증여' 모티프로 좁히고 그 안에 또 배려, 구원, 적선, 환원 등 네 개의 話素[7]로 세분한 다음, 각종의 증여 방식에 따라 증여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재분배 문제가 담론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 '치생'론과 '증여' 의식

1) 許衡과 陳確의 '치생'론[8]

『삼언이박』에는 "독서를 포기하고 장사에 나서는(棄儒就賈)" 서사가 자주 보인다. 「楊八老越國奇逢」(喩18)에서 楊復은 서른 가깝도록 글을 읽었으나 성취한 바가 없고, 살림살이가 나날이 부족해지니 장사에 나서서 몇 푼이라도 벌어들여 살림살이에 보태야겠다는 마음으로 行商에 합류한다. 「張廷秀逃生救父」(醒20)에서 張權은 두 아들 張廷秀, 張文秀에게 글공부를 시켰으나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할 길이 없자 아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친다. 「十五貫戲言成巧禍」(醒33)의 劉貴 또한 가난으로 인해 글공부를 포기하고 장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장사에 나선다. 소설의 묘사처럼 가난으로 인해 독서를 포기하고 상업에 나서는 경우가 당시에는 부지기수였다. 자의든 타의든 棄儒就賈의 현상은 당시 士人들의 '治生' 의식을 싹트게 하고, 보다 현세에 충실하고 실용적인 생활태도를 갖추게 했을 뿐 아니라 상업에 대한 기왕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장사 또한 좋은 직업, 천업이 아니라오",[9] "세상에 나가 장사하는 일도 떳떳한 일"[10]이라고 했고, "행상좌고[11]가 으뜸가는 생업이

---

7) 모티프(motif)는 소설 속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이루는 사건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고, 모티프(motif)의 번역어로 화소(話素)라고 한다. 한편, 모티프의 보다 작은 단위를 '화소'로 정의한 경우도 있는데, 최래옥은 한국의 설화를 분석하면서 이 모티프보다 그 아래에 들어갈 작은 설화 단위를 '화소'라고 정의하였다. (『한국민속문학사전』)

8) 이 절의 '치생'론을 전개하는 생각 맥락은 아래 문헌에서 도움 받았음을 밝힌다. 余英時 저, 정인재 역, 『중국근세종교윤리와 상인정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박병석, 『중국상인문화』, 교문사, 2001; 신정근, 「사익 추구의 정당화: 원망의 대상에서 주체의 일원으로—논어·명청시대 상업서를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32집, 2009.

9) 馬少卿道 : "江浙名邦, 原非異地. 經商亦是善業, 不是賤流……" (『二刻拍案驚奇』 卷29 「贈芝麻識破假形, 撷草藥巧諧真偶」)

10) 楊氏對他說道 : "你如今年紀長大, 豈可坐吃箱空 ? 我身邊有的家資, 並你父親剩下的, 盡勾營運。待我湊成千來兩, 你到江湖上做些買賣, 也是正經." (『初刻拍案驚奇』卷8「烏將軍一飯必酬, 陳大郎三人重會」)

고 과거급제는 그 다음이다"[12]라고 까지 표현했다.

그런데, 역대로 상업은 사익을 추구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업이라서 '이익 앞에 의로움을 생각(見利思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간사하지 않고서는 장사를 하지 못한다(無奸不商)'고까지 폄훼 당했다. 이처럼 義와 利의 대립구조에서 도덕적으로 격하되어 賤業으로 취급당하던 환경에서 상인들 특히 상업으로 진로를 전향한 사인들은 어떻게 고정관념을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入世의 자세를 개척해나갔을까? 이 시기에 기존의 '義利'관을 재고하여 '의로움과 이익은 함께 중하다'는 '義利並重'의 입장이 이미 대두했고, 심지어 士人에게도 '治生'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元代의 유학자 許衡[13]이 처음으로 사인도 치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 배움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치생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먹고 사는 일이 넉넉하지 않으면 배움의 길에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저들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망령되이 추구하고 관료가 되어서도 이익을 탐닉하는 까닭은 아마도 생계가 곤궁해서 그리 된 것이리라. …… 살아가는 방도에는 농업, 수공업, 행상과 좌고가 있다. 사인과 군자는 응당 생업의 근본이 되는 농사일에 힘써야 하나, 行商坐賈가 비록 지엽적인 업종이라 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결단코 장사를 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면 잠깐 한 때를 해결하는 것이니 못할 것도 없다. 만약 교학과 벼슬살이로써 생계를 도모한다면 아마도 이는 옛 성현의 뜻이 아닐 것이다.[14]

성현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儒者라도 먼저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인과 군자에게 농사일이 근본이긴 하나 末技로 취급되는 행상좌고라도 못할 것이 없다는 이치를 피력하였다. 심지어 통념상 유생의 업으로 간주되는 교학과 관직이 치생의 수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선하다. 유학자의 발언치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견해는 원대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한족지식인들의 경제적 대응을 고려해서 나온 견해였을 것이다. 비록 "의를 잃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잠깐 한 때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명대 사인들의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義利를 대척관계에 놓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상업은 개인의 이익(私利)에 치중하여 공공의 이익(公利)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儒者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明代 이후 과도한 인구증가와 제한된 관료의 수로 인해 科擧로써 관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었고, 이는 다시 士人들로 하여금 治生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

11) 행상좌고(行商坐賈)를 줄여서 상고(商賈)라고 한다. 『周禮·天官·太宰』에서 "行曰商, 處曰賈"라고 鄭玄이 注를 내었으니,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것은 '商'이라 하고 점포를 차려서 장사는 하는 것은 '賈'라는 것이다.

12) 世代儒門, 少時多曾習讀詩書. 卻是徽州風俗, 以商賈爲第一等生業, 科第反在次著. (『二刻拍案驚奇』 卷37「疊居奇程客得助, 三救厄海神顯靈」)

13) 許衡(1209年-1281年)의 字는 仲平, 또는 魯齋先生으로 칭한다. 元代의 理學家 및 교육가이다. 순수한 주자학자로서 원대 초기 학계에 주자학의 기초를 닦았다. 그의 글은 『魯齋遺書』에 수록되어 있다. 2007년에 王成儒가 교열한 『許衡集』이 출간되었다.

14) 爲學者治生最爲先務. 苟生理不足, 則於爲學之道有所妨, 彼旁求妄進及作官嗜利者, 殆亦窘於生理之所致也. …… 治生者, 農工商賈. 士君子當以務農爲生, 商賈雖爲逐末, 亦有可爲者. 果處之不失義理, 或以姑濟一時, 亦無不可. 若以教學與作官規圖生計, 恐非古人之意也. (『魯齋遺書』卷13)

달라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명말에 이르러서 허형의 치생론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호응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15] 가장 주목할 이가 陳確[16]이다. 그는 「배우는 사람은 치생을 근본으로 삼는다(學者以治生爲本論)」라는 문장을 지어서 더욱 진보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허형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 나는 일찍이 독서와 치생을 짝하여서 이 둘은 참으로 배우는 사람의 근본이라고 여겼는데, 치생이 독서보다 훨씬 절실하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독서와 치생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독서는 참된 독서가 아니라 잡학다식에 귀동냥과 말장난일 뿐이고 그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한 치생은 참된 치생이 아니라 자기만 알고 남을 헤아리지 못하고 처자식만 생각하고 부모형제를 고려할 줄도 모르니 또 어찌 그것을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진정 배움에 뜻을 둔 사람은 틀림없이 독서와 치생에 능하다. …… 어찌 배워서 성현이 되려는 이가 부모처자를 봉양하지 못하고서 남이 해주기를 바라겠는가?[17]

여기에서 진확은 독서와 치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배움의 중요한 대상으로 보았고, 치생은 독서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유생의 본업인 독서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경계했고, 치생을 통한 이익 추구가 단순한 개인의 私利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부모형제를 넘어 타인에게까지 미치는 公利적 확장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인즉슨 士農工商 등 어떠한 직업이든 배움의 대상이자 치생의 방도로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人欲에 머물지 않고 天理를 드러내는 道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四民이 각기 다른 유형의 직업으로써 저마다 內聖外王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치생'의 명분이 서려면 '人欲/私利'로써 '天理/公利'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으니 여기서 人欲과 私利의 개념은 더 이상 개인적이고 부도덕한 것만은 아니라 天理를 드러내는 公利性과 公益적 가치를 갖출 수 있다는 명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진확은 "참으로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인욕이 없는 자는 없으니" "개인의 욕망이 있음으로 해서 군자가 되는 것"이고,[18] "인욕이 올곧게 서면 그것이 천리이다"[19]라고까지 표현했다.

---

15) 余英時는 명청 시기에 변화된 士商관계의 흔적을 원대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의 학자들은 명청 양대를 거쳐서 허형의 치생설을 담론한 글들을 거론하면서 허형의 치생설이 명청 시기의 士商과 義利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趙國洪, 「許衡"治生說"與明清士商觀念－與余英時先生商榷」, 『江西社會科學』, 2006年第5期; 徐永斌, 「明清時期文人的治生觀念」, 『中國文化研究』, 2011年第4期; 方旭東, 「儒學史上的"治生論"——兼與余英時先生商榷」, 『學術月刊』, 2006年第6期; 劉曉東, 「"棄儒從商"與"以文營商"——晚明士人生計模式的轉換及其評析」, 『社會科學輯刊』, 2011年第3期.

16) 陳確(1604年-1677年)의 初名은 道永, 字는 非玄, 후에 名을 确, 字를 干初로 바꿨다. 45세에 대사상가 劉宗周의 제자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성리학설을 매이지 않고 實事求是하는 학문에 경도되어 독립적인 철학사상을 구축해 나갔다. 그러한 그의 사상은 『대학변(大學辨)』에 잘 드러나 있다. 「學者以治生為本論」이란 문장은 1656년에 지었다고 한다. 1978년에 그의 글을 집대성한 『陳確集』이 출간되었다.

17) 確嘗以讀書治生爲對, 謂二者真學人之本事, 而治生尤切於讀書. 然第如世俗之讀書治生而已, 則讀書非讀書也, 務博而已矣, 口耳而已矣, 苟求營利而矣 ; 治生非治生也, 知有己, 不知人而已矣, 知有妻子, 不知有父母兄弟而已矣, 而又何學之云乎? …… 唯真志於學者, 則必能讀書, 必能治生. …… 豈有學爲聖賢之人而父母妻子之弗能養, 而待養於人者哉! (『陳確文集』 卷5 「學者以治生爲本論」)

18) 有私所以爲君子. (『陳確文集』文集 卷1 「私說」)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해 상업은 개인의 노력에 의지해서 비교적 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천재지변을 만난 농부는 정부의 구휼을 바라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사익에 급급한 독서인과 관료는 타락에 빠지기 쉽고 부정부패를 양산한다. 상인은 다른 업에 비해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 많은 이익을 축적할 수 있고, 그러한 사익 추구로 누적된 재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부/공권력'의 '복지/분배'를 보조하거나 대신함으로써 공동체에게로 환원하는 증여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 상인의 사익 추구는 '정부/공권력'의 '구휼/복지'와 동일시되는 가능성과 타당성을 갖추는 근거가 된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內聖外王 즉 인품도 훌륭하고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갖춘 상인이 博施濟衆을 실천하는 증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2) 馮夢龍과 凌濛初의 '증여' 의식

明末의 상품경제의 발전과 과거급제의 한계는 사인들의 진로설정에 급격한 전환을 가져와서 '棄儒從商'하는 현상들이 늘었다. 그 외에 '亦儒亦商'하는 절충책으로 자신의 지식과 글을 상품화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인들도 등장했는데, 그 중에 서적 편찬과 출판업에 종사하고 통속문학작가로 성공을 거둔 풍몽룡과 능몽초의 활동을 주목할 만하다.

풍몽룡은 "상인의 요청 때문에 마을의 이목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뽑았다"[20]고 했다. 능몽초는 "책방 사람들은 그 책이 세간에서 꽤 빠른 속도로 유행하는 것을 보고, 내게 틀림없이 따로 숨겨놓은 작품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것을 출판해 잘 팔릴지 가늠해 보려 했다"고 밝혔다.[21] 또 "서상이 몰래 염탐을 하고서는 세상에 출판할 것을 요청했고",[22] "상인들이 책을 팔아보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다시 책을 쓰도록 요구했다."[23] "책방에서는 급히 세상에 내놓으려고 나에게 의견을 구하였다"[24]라고 했다. 여기에서 작품의 저술과 편찬은 書商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그래서 편집과 저술에 書商들의 간섭이 어느 정도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상의 요구는 대중지향적인 작품을 내놓아 많은 이윤을 추구하자는 것이니 이는 적극적인 '치생'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마을의 이목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뽑았다"는 풍몽룡의 말은 매우 유의미하다. 풍몽룡은 『三言』의 각 권에 喩世, 警世, 醒世 등의 표제를 붙여 교화의 뜻을 직접 드러내어 자신의 저술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음을 표방했고, 각 권의 서문 곳곳에도 敎化를 위해 책을 내었음을 주장했다. 가령, 소설의 내용은 "風敎를 해치지 않고 성현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니" 그렇게 해서 "충신, 효자, 어진 벼슬아치, 좋은 친구, 의로운 남편, 의로운 아내가 되고, 덕을 세운 선비가 되고, 적선하는 가문이 되기를 추구할 따름"[25]이라고 했다. 능몽초

---

19) 真正無欲者, 除是死人. 人欲正當處旣是理. (『陳確文集』 別集 卷2 「近言集」)
20) 因賈人之請, 抽其可以嘉惠里耳者. (『古今小說 · 序』)
21) 肆中人見其行世頗捷, 意余當別有秘本, 圖出而衡之. (『拍案驚奇 · 序』)
22) 爲書賈所偵, 因以梓傳請. (『二刻拍案驚奇 · 小引』)
23) 賈人一試之而效, 謀再試之. (『二刻拍案驚奇 · 小引』)
24) 肆中急欲行世, 徵言於余. (『二刻拍案驚奇 · 序』)
25) 不害于風化, 不謬于聖賢, 不戾于詩書經史 …… 令人爲忠臣, 爲孝子, 爲賢牧, 爲良友, 爲義夫, 爲節婦,

또한 자신의 소설은 그 창작 목적이 "勸誡에 있어"[26] "말한 자는 죄가 없고, 들은 자는 족히 경계가 되고",[27] "세상 사람들이 나의 소설을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충신과 효자가 될 것이다. 충신효자가 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음란함을 퍼뜨리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28] 라고 했다.[29] 즉, 이들은 저술의 목적이 敎化와 勸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저술 활동을 儒者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施惠'적인 '증여' 행위로 인식한 것이다.

요컨대, 通俗의 수단과 敎化의 목적이라는 기저에는 '통속과 치생', '교화와 증여'를 연계하는 의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저술, 편집, 출판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상업적 두뇌를 가졌다. 당시 과거급제로 관료가 되지 못한 士人으로서는 名利를 함께 얻는 방법으로는 저술과 출판만한 게 없었다.[30] 풍몽룡과 능몽초는 위의 문장 뿐 아니라 작품 곳곳에서 백성(독자)들을 교화하겠다는 士人으로서의 行道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식인이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꾀하여 '啓蒙/敎化'에 앞장서겠다는 점에서는 '재능기부/증여'의 소명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소설이 상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기 소설의 가치가 교화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교화'를 위해 '통속'적인 언어와 표현을 선택했다고 했다. 상업적 선택을 상당히 고려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결국 교화의 확장이란 넓은 시장에서 많이 읽혀지는 것이 우선이니 『삼언』과 『이박』은 對民敎化라는 '증여' 행위와 시장 확장(통속)을 통한 이익추구라는 '치생' 행위가 흡족한 조화를 이루어서 작가 두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을 모두 획득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31] 그러한 점에서 두 사람은 충분히 '상업적'인 마인드를 지닌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걸치고 있는 절반의 세계 — 상인과 상업 활동에 대한 호감과 긍정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자긍심도 느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삼언이박』에서 유생이 아닌 평범한 생활인이면서도 양호한 도덕적 품성을 지녔고, 성실근면하고 근검절약하고, 능동적이고 진취적 태도를 견지한 상인들을 소조할 수 있었다.[32] 아울러 敎化를 기치로 내세워 저술과 출판이란 상업수단으로 '치생'을 달성함으로써 명예와 이익을 함께 획득했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잘 이해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재분배'의 문제 즉 '증여'의 중요성 또한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爲樹德之士, 爲積善之家, 如是而已矣. (『警世通言・序』)

26) 意存勸戒. (『二刻拍案驚奇・小引』)

27) 總以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爲戒. (『拍案驚奇・序』)

28) 使世有能得吾說者, 以爲忠臣孝子無難, 而不能者, 不至爲宣淫而已矣. (『二刻拍案驚奇・序』)

29) 『삼언』과 『이박』은 모두 '文以載道'의 교화적 기능성과 대중문학으로서의 통속성과 오락성을 모두 지향한다. 『삼언』은 『이박』에 비해 교화의 가치를 더욱 표방하고, 『이박』은 『삼언』에 비해 상당히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이 짙다.

30) 馮夢龍, 凌濛初 등은 저술, 편집, 출판에 의지하여 문인 취향의 것에서 일반대중의 기호에 부합되는 것까지 대중화시킴으로써 저명한 인사가 되었고, 저술과 출판이 지식인으로서 名利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상업'활동이라고 평하고 있다. 참고: 오오키 야스시 저,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제4장 명말 강남의 출판인」, 소명출판, 2007.

31) 풍몽룡과 능몽초는 쉰이 넘어서도 벼슬을 하지 못했는데 각자 『삼언』과 『이박』의 성공으로 명성을 떨친 후에 관직에 제수되었다. 참고: 김민호, 「풍몽룡과 능몽초, 그 같음과 다름」, 『중국소설논총』, 제11집, 2000.

32) 그래도 저술과 출판의 목적을 '교화'로 자처하는 이상 부정적 상인형상을 질타하는 서사도 빼놓지 않았다.

3. 『三言二拍』의 '증여' 서사

『삼언이박』에는 증여의 서사가 풍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을 '상인'의 범주에 넣고, 그러한 인물형상이 들어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그 속에 반영된 '증여' 서사를 살펴볼 것이다. 邱紹雄은 『中國商賈小說史』에서 『삼언』 120편에서 상인을 묘사하거나 상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50여 편, 『이박』 78편에서 1/4 정도의 분량으로 꼽고 있다. 그 중 시간배경이 明代인 작품이 69편인데, 69편 중 절반 이상이 상인이 주인공이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33] 작품에 서사된 인물들의 증여 행위를 그 물적 규모에 따라 나누면, 작게는 선량하고 성실한 이가 '배려'의 미덕을 베풀거나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 곤궁에서 '구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 크게는 布施 등의 행위로 공동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積善'이 있고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분배하여 사회로 '환원'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치생과 그에 따른 증여의 행위를 배려, 구원, 적선, 환원 등의 話素로 세분하고 이러한 여러 '증여' 서사의 기저에 내밀한 증여 의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배려와 구원

① 배려

관대함과 관용은 상대에 대한 진지함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다. 「蔣興哥重會珍珠衫」(喩1)에서 蔣興哥는 아내의 不貞을 세속의 윤리에 따라 질타하지 않고 그녀와 그녀 가문의 체면을 염두에 두면서 이혼을 진행한다. 「賣油郎獨占花魁」(醒3)에서 기름장수 秦重은 기방의 꽃 莘瑤琴과의 만남을 위해 힘들게 벌어들인 은자 10냥을 겨우 마련하여 가까스로 그녀와의 만남을 성사하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녀를 위해 곁에서 지극히 보살핀다. 「施潤澤灘阙遇友」(醒18)에서 비단장사 施復은 귀갓길에 은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은자의 주인을 기다린다. 훗날 다른 장소에서 은자의 주인 朱恩을 만나게 되어 돌려 줄 수 있게 된다. 「呂大郎還金完骨肉」(警5)에서 옷 장사를 하는 呂玉 또한 측간에서 은자 200냥을 발견하고는 주인이 찾아오길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훗날 우연히 만난 양곡상인 陳朝奉과의 대화중에 그가 주인임을 알아채고 돌려주게 된다. 「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鼉龍殼」(初刻1)에서 張大는 남을 즐겨 돕는 호인으로 밑천이 없는 文若虛를 자신의 상단에 수용하고, 장사 경험이 거의 없는 문약허가 곤경에 처할 때 마다 여러 조언과 함께 독려하며 아울러 합리적으로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② 구원

---

33) 方志遠의 『明代城市與市民文學』, p.376; 송진영의 「'삼언'의 상고소설연구」, p.199; 송진영의 「'이박'의 상고소설 연구」, p.167의 내용과 각주 참고. 邱紹雄의 『中國商賈文學史』에도 상인의 출현 유무, 상인이 주요인물로 출현하는 경우, 상고문학의 특질을 드러내는 경우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작품을 지정하고 있다.

구원은 곤경에 처한 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인데, 『삼언이박』에서는 대체로 '재물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정도로 의리를 실천하는(仗義疏財)' 유형에 해당한다. 가령, 「徐老仆義憤成家」(醒35)에서 늙은 노비 阿寄는 자신이 섬기는 젊은 과부와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行商에 나서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뿐 아니라, 큰돈을 들여 과부의 아들들을 國子監에 들여 監生이 되게 하는 등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呂大郎還金完骨肉」(警5)에서 呂玉은 귀향길에서 침몰하는 배를 목격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을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자 은자 20냥을 내걸어 구조를 요청한다. 「烏將軍一飯必酬, 陳大郎三人重會」(初刻8)의 入話에는 王生은 조실부모하여 숙모 楊氏가 양육했는데 18세가 되자 가업을 이어 行商에 나서기를 독려하고, 여러 번의 실패로 실의에 빠진 조카 왕생을 거듭 격려하고 기탄없이 苦言할 뿐 아니라 상당한 자금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韓侍郎婢做夫人, 顧提控掾居朗署」(二刻15) 중의 入話에서는 어느 徽商이 강물에 투신하는 아낙네를 발견해 구출하고 돈을 내어 주어 그녀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외 施復, 劉德, 劉方(方申)부자 등도 남을 경제적 위기에서 구원하는 증여를 베푸는데 이런 유형의 작품들은 『삼언』과 『이박』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상, '배려'와 '구원'의 예로 제시한 인물형상들은 巨商과 巨富같은 상당한 재력가는 아닐지라도 상업에서의 성취로 돈과 재물을 축적해서 상당한 자립능력을 갖추었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인물들이다. 余英時는 명청 시기에 나온 여러 商人書에서 상인윤리 중에 '성실함과 신용(誠信)', 그리고 '속이지 않음(不欺)'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고 했다. 그리고 誠信은 근검절약을 토대로 하는데 근검절약이 지나치면 자린고비 같은 인색함으로 탐욕으로 치우치게 되어 주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게 되니, 이를 항상 경계하여 주위에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34] 따라서 위에 거론한 인물형상들은 '誠信'과 '不欺'의 덕목을 잘 修身함으로써 근검절약의 미덕은 갖추되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길러낸 인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이 기꺼이 행한 배려와 구원의 증여 행위는 측은지심의 발로와 見利思義의 실천으로 도덕과 윤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물론, 배려와 구원의 증여 모티프는 중국 전통시기 서사물에서 흔히 있어왔다. 『삼언이박』 등의 話本體 서사물 이전에도 '施恩 → 報恩' 구조의 보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배려와 구원의 화소는 보은 이야기에서 보은의 동기가 되는 시은과 다르지 않다. 史傳을 보면, 豫讓·聶政·荊軻 등은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士为知己死)"면서 恩主가 知遇하는 '배려'에 답례하기 위해 살인을 하거나 목숨을 내놓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35] 동물과 異物의 보은 이야기가 풍성한 志怪와 傳奇에는 인간이 동물이나 異物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는데 그 덕분에 훗날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라는 상상 밖의 답례를 얻는다. 그런데, 전통적인 보은 이야기는 시은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로 돌아오는 보은의 내용에 서사의 무게가 실려 있다. 대체로 시은'물/행위'에 비해 보은'물/행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시은보다는 보은에 그 서사가 집중되어 있다. 그 근저에

34) 余英時, 위의 책, p.240.
35) 『史記·刺客列傳』참고

전자는 忠義 사상을 고취하고, 후자는 善有善報의 기대심리와 함께 인간의 윤리적 각성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36] 그러나 화본체 소설『삼언이박』은 보은의 동기가 되는 시은 행위 즉 배려와 구원의 증여 행위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가령, 군주가 불우한 사인에게 금전 제공과 함께 예의로 배려했다는 것, 인간이 지나는 길에 위기를 처한 동물이나 이물을 구원해 줬다는 전통적인 보은 이야기의 시은 행위에 비해서, 장사일로 바쁜 상인이 우연히 은자를 습득하고 그것을 은닉하지도 않을뿐더러 종일 물건의 임자를 기다리는 배려를 베푼 것,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임에도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한 시은 행위는 상호관계를 따지면 은혜의 가치 중량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삼언이박』에서는 이야기 첫 출발이 되는 주인공의 시은 행위에서부터 필력을 들여 집중적으로 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서사의 힘으로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근면하고, 측은지심의 발로에서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상인의 미덕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2) 적선과 환원

① 적선

積善은 종교내적으로는 종교기관에 큰돈이나 재물을 시주하여 자신과 타인들을 위해 善業을 쌓는 것이고 종교외적으로는 선행을 생활화하여 선업을 쌓는 것인데 역시 일종의 전통적 형태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시주 및 보시는 자비심으로 절이나 도관에 금전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삼는 이타정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와 사후 세계를 위해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 변화되었다.『삼언이박』의 관련 작품 내에도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절이나 도관에 시주를 하여 음덕을 쌓거나 선행을 생활화한다는 서사가 있다. 대체로 전통시기의 민간에서는 그렇게 쌓아올린 음덕과 선업이 타인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중을 받아 왔고 시주의 보시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37] 가령,「劉小官雌雄兄弟」(醒10)에서 劉德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위기로부터 구제하는 일이 전생의 악업을 덜어내는 일이라 믿고 평생토록 선행을 베풀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아래에 그 내용의 일부를 보도록 하자.

<u>류공은 평소 착한 일을 즐겨하여, 두루 남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일들을 힘껏 도왔다.</u> 술 마시

---

36) 보은 서사의 구조와 의미는 아래 논문을 참고. 유미경,「교환과 증여의 서사 — '보은' 서사를 넘어서」,『중국소설논총』, 제47집, 2015.

37)『增一阿含经』은 "시주의 베품에는 다섯 가지의 공덕이 있다. 하나, 그 명성이 사방 멀리 퍼져서 대중이 감탄한다. 둘, 만약 뭇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면 부끄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진다. 셋째,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아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한다, 넷째, 생명이 다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면 하늘의 존경을 받고, 인간세계에서 태어나면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섯 째, 그 지혜가 뭇사람을 훨씬 초월하여 현세의 몸이 다 사라져 내세를 겪지 않는다"고 하여 시주의 보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施主惠施有五功德 : 名聞四遠, 衆人歎譽. 若至衆中, 不懷慚愧, 亦無所畏. 受衆人敬仰, 見者歡悅. 命終之後, 或生天上, 爲天所敬 ; 或生人中, 爲人尊貴. 智慧遠出衆人之上, 現身漏盡, 不經後世. (『增一阿含经・卷24』) http://www.fodizi.net/fojiaozhishi/19791.html [2019.02.10.]

러 온 사람이 어쩌다가 가진 돈이 모자라도 그는 야박하게 따지지 않았다. 간혹 어떤 이는 더 많은 돈을 내기도 하는데 류공은 받을 돈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돈은 꼭 돌려주어 조금이라도 탐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다. "제 실수로 그대에게 준 돈을 그냥 뒀다가 쓸 수도 있는데 어찌 다시 돌려주십니까?" 류공이 대답했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전생에 좋은 덕을 닦지 못해 금생에 벌을 받아 제사 지내줄 자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또 양심 속이는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운수에 없는 돈이 조금이라도 내 손에 잘못 들어온다면, 일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릴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사단이 생겨서 더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돌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류공은 사람됨이 공정했으니 마을에서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고 모두가 그를 '류어르신'이라고 불렀다.[38]

그 외, 「宋小官團圓破毡笠」(警22)에서 자녀가 없는 宋敦 부부가 陳州娘娘廟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서 경배하게 하니 아이를 얻었다는 내용이 있다. 「金令史美婢酬秀童」(警15)에서는 道館에 천 냥을 시주하여 인공산을 치장하고, 「鹽官邑老魔魅色, 會骸山大士誅邪」(初刻24)에서는 觀音閣 조성에 시주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 배려와 구원은 惻隱之心이라는 심리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그 행위가 간헐적이고 斷續적이라면 적선은 장기적인 지속성을 지니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증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② 환원

『三言』의 상인들은 대개 중소상인들이라 '분배[散]'를 발휘할 만큼 재물의 규모가 방대하지 못해서인지 대체적으로 뜻하지 않은 재물을 탐내지 않고 見利思義하는 도덕심으로 배려, 구원, 적선하는 증여 행위에 머물러 있다. 『이박』에는 巨富와 巨商이 많이 등장하는데,[39] 「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鼉龍殼」(初刻1)에서 文若虛가 동료들의 도움으로 수익을 내자마자 그 수익을 분배하여 환원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巨富와 巨商이 재부의 사회적 환원을 지속하는 서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巨富의 상징으로 유명한 石崇과 鄧通을 入話에서 끌어내어 부를 축적하기만 하고 환원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서술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가령, 「宋四公大鬧禁魂張」(喩36)의 入話에서 형장에서 죽음을 앞둔 석숭에게 망나니가 "그 많은 재산이 제 몸을 다치게 할 줄 진즉에 알았다면 남들에게 베풀었을 터인데"[40]라고

38) 劉公平昔好善, 極肯周濟人的緩急. 凡來吃酒的, 偶然身邊銀錢缺少, 他也不十分計較. 或有人多把與他, 他便勾了自己價銀, 餘下的定然退還, 分毫不肯苟取. 有曉得的, 問道 : "這人錯與你的, 落得將來受用, 如何反把來退還?" 劉公說 : "我身沒有子嗣, 多因前生不曾修得善果, 所以今世罰做無祀之鬼, 豈可又爲恁樣欺心的事 ! 倘然命裏不該時, 錯得了一分到手, 或是變出些事端, 或是染患些疾病, 反用去幾錢, 卻不到折便宜 ? 不若退還了, 何等安逸." 因他做人公平, 一鎮的人無不敬服, 都稱爲劉長者. (「劉小官雌雄兄弟」(『醒世恒言』 卷10 「劉小官雌雄兄弟」)

39) 『삼언』은 송원화본을 수록하고 있고, 일부가 명대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박』의 작품 대부분은 명대 중후기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명대말기에야 상업경제가 전무후무하게 발달하여 부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巨富巨商도 증가했다. 관련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 송진영, 「'二拍'의 商賈小說 연구—「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鼉龍殼」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第46輯, 2015; 한혜경, 「명대의화본소설에 나타난 상인들의 풍모와 이국정취」, 『中國小論論叢』, 第27輯, 2008.

비꼰다. 「蘇知縣羅衫再合」(驚11)에서는 "옛날 石崇은 재물로 인해 죽음을 당했고, 鄧通은 구리 광산 때문에 굶어 죽은 것은 아니라네"라는 노래를 넣었다.[41] 즉, 부자들은 재물을 탐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베풀어서 선업을 쌓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음덕을 쌓아야만 불행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경제기득권자에게 재부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인식과 각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빈부 균등을 희구하고 경제적 기득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소망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42]

그래서 특히 뒤에 나온 『杜子春三入長安』(醒37)[43]에 가서는 재부의 사회적 환원을 직접 서사하고 칭송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揚州鹽商의 자제로 태어나 더할 나위 없이 부유한 삶을 즐겼던 두자춘은 두 번의 패가망신 끝에 깨달음을 얻고, 세 번째 증여받은 은자 30만 냥으로 다시 가업을 크게 일구어 致富에 성공한다. 그런 후에 전 재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博施濟衆을 실천하는데 이로써 온천하의 칭송을 받는다.

> 兩淮에서 瓜州에 이르는 땅 여러 곳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농장을 세웠고, 그 안에 그들을 위한 논밭, 학교, 묘지들을 마련하였다. 고아, 과부, 늙은이, 병약한 이들을 가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고, 배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글선생을 모셔와 가르쳤고, 죽은 이들을 위해 관을 마련하여 장례를 치렀다. 천리 내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물론 온천하의 사람들이 "두자춘 이 사람 망했는데도 다시 가업을 일으켜 세웠구나. 가업을 세워놓고서 또 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 어찌 하늘이 내린 호걸이 아니겠는가!"라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44]

재부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예로부터 '돈/재물/상인/상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유가 私利에 집착하여 재산증식[集]에만 치중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사회로의 환원[散]을 고려하지 않는 재산증식[集]은 天理를 거스르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일찍이 漢代의 역사가 班固가 『漢書·食貨志』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 食은 농지에서 나오는 곡식 같은 먹거리이고 貨는 몸에 걸치는 의복과 금속, 칼, 거북껍질 등의 화폐이다. 그래서 이 재물들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잘 분배되어 '通'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食과 貨 이 둘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근본이다. …… 食貨가 넉넉하고 잘 나뉘어 유통되

---

40) 石崇臨刑時, 嘆曰 : "汝輩利吾家財耳." 儈子手曰 : "你既知財多害己, 何不早散之 ? " 石崇無言可答, 挺頸受刑. (『喩世明言』 卷36 「宋四公大鬧禁魂張」)

41) 昔日石崇因富死, 銅山不助鄧通窮. (『警世通言』 卷11 「蘇知縣羅衫再合」)

42) 유미경, 「'삼언'의 화폐형식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39집, 2014, p.262.

43) 이 작품은 원래 唐 牛僧孺의 『玄怪錄』에 수록되어 있는 2200여 자의 文言傳奇 「杜子春」을 14,000여 자로 개작한 白話話本이다. 시대배경을 隋文帝 때로 설정하고 있지만, 전기「두자춘」과 달리 두자춘 집안이 대대로 揚州에서 활동한 鹽商임을 강조한 것, 銀錠元寶가 등장하는 점, 상당 부분 두자춘의 세속생활을 묘사한 곳에서 명대의 분위기가 생생하다.

44) 又在兩淮南北直到瓜州地面, 造起幾所義莊, 莊內各有義田義學義冢. 不論孤寡老弱, 但是要養育的, 就給衣食供膳他 ; 要講讀的, 就請師傅教訓他 ; 要殯殮的, 就備棺椁埋葬他. 莫說千裏內外感被恩德, 便是普天下那一個不贊道 : "杜子春這等敗了, 還掙起人家. 才做得家成, 又幹了多少好事, 豈不是天生的豪傑 ! " (『醒世恒言』 卷37 「杜子春三入長安」)

어야만 나라의 창고가 실해지고 백성의 삶이 넉넉해지며 그래서 교화가 이루어진다.[45]

'食貨志'는 중국 역대 正史에 들어 있는 각 왕조의 재정기록지이다. "재물과 이익이 잘 분배되어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나라의 자산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잘 '분배(散)'되어 고르게 '유통(通)'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국가와 정부의 임무인 것이다. 唐代의 張說은 「錢本草」에서 개인의 범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음(積)'와 '나눔(散)'의 갈등과 조화에 대해 탁월한 견해를 내놓았다.

"돈을 쌓아놓고 널리 나누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나 도둑을 불러들이는 재앙이 생긴다. …… 돈을 쌓기도 하고 널리 나누기도 해야 道라 한다. 돈을 보물 보듯 매달리지 않으면 德스럽다 하고, 알맞게 취하여 모으면 義롭다 한다. 돈을 분수에 맞게 벌어들이면 禮라 하고, 널리 베풀어 뭇사람을 구제하면 仁하다고 한다. 나눌 때는 알맞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信이라 하고, 벌어들일 때 자기 몸을 상하지 않게 해야 智라고 한다."[46]

돈을 '모으고(積)'과 '나누는(散)'의 이치를 德義禮仁의 윤리적 가치와 연계하여 설파하고 있는데 나눔(散)이 없는 모음(積)의 위험을 경계하고, 나눔(散)의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삼언이박』이 간행되고 읽히던 명대 후기에는 상인들이 직접 상업방법과 상업윤리를 저술한 商人書[47]가 간행되기도 했다. 그 중에 李晉德의 『客商一覽醒迷』[48]은 상인윤리에 대해 많은 서술을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상에 거하며 사람답게 살아서 名節과 綱常을 길이 남겨야 하네. 자고로 사악하고 부도덕한 간신배들은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도 자신을 먼저 망쳤네.[49]

오로지 바르고 곧은 사람만 紀綱과 大節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오로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주며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 법이다.[50]

인색하고 베풀기를 싫어하는 이는 그 성질이 대체로 탐욕스럽다. 들어오는 이익이 있어도 적다 여기며 늘 부족하다고 원망한다. 넓은 마음으로 널리 베풀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는 그 마음이 대개 어질다. 어디에서나 관대하니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자연스레 들어오는 이익이 있다.[51]

---

45) 食謂農殖嘉穀可食之物, 貨謂布帛可衣,及金刀龜貝, 所以分財布利通有無者也, 二者生民之本, …… 食足貨通, 然后國實民富, 而教化成. (『漢書·食貨志』)

46) 如积而不散, 则有水火盗贼之滅生 …… 一积一散谓之道, 不以为珍谓之德, 取合宜谓之义, 無求非分谓之禮, 博施济众谓之仁, 出不失期谓之信, 入不妨己谓之智. (『全唐文二百二十六卷・張燕公集』)

47) 명대에 상인들의 저술이 간행되었는데, 학계에서는 程春宇의 「士商類要」와 李晋德의 「客商一覽醒迷」를 상당히 주목한다. 여기에 상업의 방법과 함께 상업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인의 덕목이 '치생'과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48) 崇禎8년(1635)에 간행되었으며 대체로 상인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49) 處世爲人做一場, 要留名節与綱常 ; 古來傾險奸臣輩, 國未亡兮身已傷. (『客商一览醒迷・警世歌』)

50) 楊正泰 校注, 『客商一覽醒迷・天下路程圖引・天下水陸路程.』, 山西人民出版社, 1992, p.314. (홍성화, 「명대 후기 상업서를 통해서 본 객상의 윤리의식」, 『중국사연구』, 제56집, 2008, p.155에서 재인용)

상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수준을 "명절과 강상을 길이 남기고" "기강을 바로잡고 큰 절개를 세우는" 인격으로 끌어올리고 "널리 베풀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심지어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 聖賢의 경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명대 말기라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 조건과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은 상인의 사업운영에도 불안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근검절약하고 성실근면한 개인의 修身에 의지해서만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와 변화무쌍한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 상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면 높은 수준의 신용을 얻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니, 그 방법이 바로 위의 상업서 속에서 강조된 시혜 행위였던 것이다.[52] 즉, 원래는 군주나 관료 등 정치지도자들에게 요구되었던 內聖外王의 인품과 능력, 博施濟衆하는 시혜의 덕목을 이제는 상인계층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처세법이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인계층은 儒者에 의한 교화대상이기도 했지만 경제적 실력을 토대로 급부상한 사회적 위상으로 인하여 士人과 평등한 교류를 지속하고 나아가 과거급제를 바라보거나 관직을 사기도 하고, 사인의 학문과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체화하려고 했다. 따라서 위의 상인서에서 상인에게 요구한 도덕적 품성, 내성외왕과 박시제중의 실천은 상인이 더 이상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가 지역사회 속에서의 안정성 확보라는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양하고 실천했던 적극적인 대책이었다.

상인은 어느 계층보다 넉넉한 재부를 가지고 있어서 재부의 사회적 환원으로 天理를 실천하는 길을 확장할 수 있다. 비록 지역사회 속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에서 나온 의도적 선택이었다 해도 明末의 왕조 교체기는 정치권력의 부재로 백성들의 삶은 공권력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막대한 재부를 축적한 거상거부들이 박시제중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증여'의 덕목이 더욱 절실히 기대되는 시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훗날 淸代 사람 沈垚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면서 사인과 비교하면서까지 상인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

> 그러나 친인척과 널리 화목하게 지내고, 타인에게 신실하고, 어려운 이를 구휼하는 기풍은 사대부층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인층에서 보였는데, 왜 그런 것일까? 그런 즉 천하의 추세는 그 무게가 상인층에 치우쳐 있으니, 무릇 호걸과 지략 있는 사람들이 예서 많이 나왔으니 그들의 업은 행상좌고이고, 그 됨됨이는 호걸이었다. 호걸다움으로 천하의 물정을 꿰뚫어 살피니, 그래서 능히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남들은 야박하게 대하는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래서 사인은 갈수록 인정머리가 없어져 갔고, 상인은 갈수록 온유돈후해 졌다.

---

51) 吝己不好施與者, 其性多貪, 所入亦狹, 常恨不足. 大度廣布博濟者, 其心多仁, 所處亦寬, 必自有来. (『客商一覽醒迷・商賈醒迷』) 楊正泰 校注, 『客商一覽醒迷・天下路程圖引・天下水陸路程』, 山西人民出版社, 1992, 第310頁.

52) 상인에게 높은 신용도는 필수부가결하고, 시혜행위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의 윤리의식 또한 상업 활동의 장기적 지속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이다. 이상, 상인에게 요구되었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지역사회 속에서의 신용획득과 장기적 상업 활동에 관한 내용은 아래 문헌을 참고. 홍성화, 위의 책, pp.154-158.

이 또한 세상의 이치와 풍속이 크게 변한 것이다.[53]

이상, '적선'과 '환원'형의 경우는 治生이란 사익 추구의 결과로 축적된 재물은 私利의 영역을 초월하여 적선과 환원의 길을 실천하면서 公共善에 기여함을 문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치생을 통한 이윤과 사익 추구에 정당성을 실어주었다면 그에 대한 증여의 사회적 책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명대말기라는 정치적 혼란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구휼하는 공적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치생론의 대두는 儒家의 전통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정치의 부재로 인해 개인의 영역에서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타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생과 치부의 사익 추구는 오로지 박시제중하는 공익 실현을 지향하고 실천해야만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4. 나가면서

21세기의 지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증여 담론이 활발하다. 본 논문은 그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500여 년 전 明末 사회에서 공유했던 의식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되었다. 부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공정한 분배[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혼란기에는 '가진 자들의 분배[증여]'를 기대하게 되고, 그 결과 이것이 개인의 저술이나 허구의 서사에서 담론되었음을 발견했다.

본 논문은 許衡에서 陳確으로 이어지는 '治生'론에서 출발한다. 가진 자의 나눔을 기대하려면 먼저 가진 자의 재부를 긍정해야 한다. 허형과 진확은 치생이 讀書보다 우선한다는 파격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士農工商 중 어떤 직업을 선택하여 私利을 추구해도 그 과정과 끝은 증여를 실천하여 공동체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公利/公益'에 닿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치생은 사익만 도모하여 남을 여위게 하고 나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만든다는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으로 재부를 쌓아올려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한 사상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혔다. 그러한 진보적인 사고가 존재했던 시대에 명말의 소설가 풍몽룡과 능몽초는 자신들의 소설집의 저술 목적은 教化에 있으니 그 수단으로 통속성을 지향했다고 표방했다. 여기서 이윤 추구의 치생 욕구와 對民教化의 증여 의식이 만나서 그들의 소설집 『삼언』과 『이박』이 세상에 나온 것임을 밝혔다.

『삼언이박』에는 각종 이윤 추구를 위한 치생의 현장 뿐 아니라 증여 행위에 대한 서사도 풍부하다. 증여 서사의 풍부함을 드러내고자 증여 모티프를 배려, 구원, 적선, 환원 등의 화소

53) 然而睦婣任恤之風往往難見於士大夫, 而轉見於商賈, 何也？則以天下之勢偏重在商, 凡豪傑有智略之人多出焉, 其業則商賈也, 其人則豪傑也。爲豪傑則洞悉天下之物情, 故能爲人所不爲, 不忍人所忍。是故爲士者轉益孅嗇, 爲商者轉敦古誼。此又世道風俗之大較也. 沈垚, 『落帆樓文集』 卷24 「費席山先生七十雙壽序」, 『續修四庫全書』 第1525冊, pp.663-664. (常文相, 『地位、觀念、角色——社會變遷中的明代商人』, 東北師範大學博士論文, 2017, p.411에서 재인용)

로 세분한 다음 작품 속의 다양한 증여 행위를 조명하였다. 『삼언이박』은 전체적으로 배려와 구원의 서사가 가장 풍부하다. 상대에 대한 관대함과 관용에 비롯되는 '배려'형,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남의 곤경을 해결해 주는 '구원'형의 서사는 근검절약과 성실함, 남을 속이지 않는 도덕성, 측은지심의 발로 등 유가의 이상적 품성을 갖춘 상인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시주하거나 일상에서 선업을 쌓는 '적선'형 서사 또한 상당히 많은데,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그러한 적선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게도 복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적선'형 서사가 증여의 행위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환원'형을 언급했다. '환원'형의 서사는 드물게 보이지만 入話의 형식으로 끌어낸 石崇과 鄧通의 일화와 杜子春의 파란만장한 인생 서사에서 예시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상인들의 윤리의식을 촉구하고 공동체로의 재부 환원을 기대하는 민간대중의 심리가 반영되었음을 밝혔다. 당시의 商人書에서도 덕을 닦고 널리 시혜를 베풀 것을 권장하는 글들이 있었으니 상인계층에서나 대중들에게서나 內聖外王의 덕목을 갖추고 博施濟衆을 실천하는 상인의 출현을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馮夢龍, 『三言』.
凌濛初, 『二拍』.
司馬遷, 『史記』.
班　固, 『漢書』.
許　衡, 『許衡集』, 中州古籍出版社, 2009.
陳　確, 『陳確集』, 中華書局, 1979.
楊正泰 校注, 『客商一覽醒迷 · 天下路程圖引 · 天下水陸路程』, 山西人民出版社, 1992.
唐力行, 『商人與中國近世社會』, 商務印書館, 2003.
邱紹雄, 『中國商賈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 2004.
方志遠, 『明代城市與市民文學』, 北京中華書局, 2004.
常文相, 『地位、觀念、角色－社會變遷中的明代商人』, 東北師範大學博士論文, 2017.
趙國洪, 「許衡"治生說"與明清士商觀念——與余英時先生商榷」, 『江西社會科學』, 2006年第5期.
徐永斌, 「明清時期文人的治生觀念」, 『中國文化研究』, 2011年第4期.
方旭東, 「儒學史上的"治生論"－兼與余英時先生商榷」, 『學術月刊』, 2006年第6期.
劉曉東, 「"棄儒從商"與"以文營商"－晚明士人生計模式的轉換及其評析」, 『社會科學輯刊』, 2011年第3期.
박기수 외, 『중국전통상인과 근현대적 전개』, 한국학술정보, 2010.
박병석, 『중국상인문화』, 교문사, 2001.
余英時 저, 정인재 역, 『중국근세종교윤리와 상인정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오오키 야스시 저,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김민호, 「풍몽룡과 능몽초, 그 같음과 다름」, 『중국소설논총』, 第11輯, 2000.
송진영, 「明淸商賈小說試論－『金瓶梅』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第36輯, 2011.
_____, 「'三言'의 상고소설연구 —「蔣興哥重會珍珠衫」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第44輯, 2013.
_____, 「'二拍'의 商賈小說연구 —「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龜龍殼」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第46輯, 2015.
신정근, 「사익 추구의 정당화: 원망의 대상에서 주체의 일원으로 — 논어·명청시대 상업서를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32집, 2009.
유미경, 「'三言'의 화폐형식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39집, 2014.
유미경, 「교환과 증여의 서사 — '보은' 서사를 넘어서」, 『중국소설논총』, 第47輯, 2015.
한혜경, 「명대의화본소설에 나타난 상인들의 풍모와 이국정취」, 『中國小論論叢』, 第27輯, 2008.
함은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화본소설중의 상인형상」, 『中國小說論叢』, 第25輯, 2007.
_____, 「'三言''二拍'中商人刑象的社會意義」, 『國際中國學研究』, 제6집, 2003.
홍성화, 「명대 후기 상업서를 통해서 본 객상의 윤리의식」, 『중국사연구』, 제56집, 200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三言, 二拍, 明末, 贈與, 治生
	영문	*SanYan*, *ErPai*, The Late *Ming*, To Make a Living, Gift-Giving

The Description of 'Gift-Giving' in 《*SanYan*》 and 《*ErPai*》

Yoo, Mi-Kueng

The paper discusses as followings.

First, progressive Confucian scholars who were active around Ming Dynasty look it positively to make a living. Furthermore, they recognized the desire to make a living as a foundation to practice gift-giving not to be against gift-giving. 《*SanYan*》 and 《*ErPai*》 is the representativ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at the end of Ming Dynasty. Feng Meng-long is the author of 《*SanYan*》 and 《*ErPai*》 is the work of Ling Meng-chu. They said that the stories were aimed for popular appeal both in style and content as the collection were written to enlighten people. As far as I can judge, they told like that as they were crossed between the ideas of the desire to make a living and the consciousness of give-giving.

Secondly, it's literally shaped in 《*SanYan*》 and 《*ErPai*》 with the desire to make a living and the consciousness of gift-giving. I bring it up that the description of gift-giving which is the subject of the paper, is manifested in a variety of motifs such as consideration, salvation, charity, restoration. In addition, I investigate a variety of consciousness structure on the base of those motifs and find out the way how accumulation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is discussed in literature.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유미경 / 劉美景 / Yoo, Mi-Kueng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chinamky@daum.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2월 19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